

[보도자료] 토트넘 친선부터 PL 써머 시리즈까지, 쿠팡플레이 단독 중계

2025. 7. 18.



쿠팡플레이가 레딩과 토트넘의 클럽 친선경기를 생중계한다.

- 손흥민·양민혁의 토트넘부터 AC 밀란까지, 해외 빅 클럽 프리시즌 30경기 이상을 쿠팡플레이에서 만난다
- 프리미어리그 4개 구단 참가하는 '써머 시리즈' 6경기, 단독 생중계
- 오는 7월 19일(토) 레딩과 토트넘의 맞대결에 시선 집중

2025. 07. 18. - 쿠팡플레이가 올여름, 유럽 축구 빅클럽들의 프리시즌 매치를 단독 생중계한다. 친선경기부터 'PL 써머 시리즈'까지 총 30경기 이상이 축구 팬들의 여름을 뜨겁게 채운다.

특히 손흥민과 양민혁이 소속된 토트넘 홋스퍼(이하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가 라인업에 포함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2025-26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으로, 팬들은 '스포츠 패스'를 통해 각 팀의 활약상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 손흥민, 황희찬, 배준호까지 한국 팬들을 위한 프리시즌 빅매치 풍성

쿠팡플레이는 7월 12일(토)부터 8월 10일(일)까지, 유럽 명문 구단들의 프리시즌 매치를 생중계하며 축구 팬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 AC 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유럽 강호들이 총출동하며, 손흥민과 양민혁이 활약 중인 토트넘을 비롯해 울버햄튼, 스토크시티 등 한국 선수들이 소속된 팀들의 경기도 오직 쿠팡플레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7월 19일(토) 레딩 vs 토트넘 ▲7월 26일(토) 루턴 타운 vs 토트넘 ▲7월 31일(목) 아스날 vs 토트넘 경기는 손흥민과 양민혁의 활약을 시즌 개막 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주목되며, ▲7월 26일(토) 스토크 시티 vs 울버햄튼 경기는 배준호와 황희찬의 맞대결 여부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7월 19일(토) 셀틱 vs 뉴캐슬 ▲7월 23일(수) 아스날 vs AC 밀란 ▲7월 27일(일) 리버풀 vs AC 밀란, 아스날 vs 뉴캐슬 ▲8월 9일(토) 뉴캐슬 vs 에스파뇰 등 30경기 이상의 프리시즌 빅매치들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쿠팡플레이가 'PL 써머 시리즈'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 프리미어리그 써머 시리즈, 4개 구단의 치열한 경쟁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생중계

세계 최고 리그로 손꼽히는 프리미어리그가 올여름 다시 한번 미국을 찾는다. '2025 프리미어리그 써머 시리즈'는 7월 27일(일)부터 8월 4일(월)까지 뉴저지, 시카고, 애틀랜타에서 펼쳐지며, 에버턴, 본머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등 총 4개 구단이 참가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써머 시리즈 전 경기를 독점 생중계하며, 팬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총 6경기로 구성되며, ▲7월 27일(일) 에버턴 vs 본머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웨스트햄의 경기가 이어진다. ▲7월 31일(목)에는 웨스트햄 vs 에버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본머스 ▲8월 4일(월)에는 본머스 vs 웨스트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에버턴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시리즈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주요 구단들의 전력을 최종 점검하는 실전 무대이자, 팬들에게는 시즌 시작 전 반드시 챙겨봐야 할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프리시즌 중계에 국내 최고 수준의 축구 해설진을 투입한다. 양동석, 윤장현, 김용남, 백승협, 안형진 캐스터와 한준희, 장지현, 이근호, 남윤성 황덕연, 임형철 해설위원까지 실력과 중계진이 합류해 경기의 몰입도를 높이고, 팬들에게 깊이 있는

해설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 깜짝 특별 해설위원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이번 프리시즌 중계는 더욱 풍성하고 색다른 재미를 더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프리미어리그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즌이 될 것 같다. 쿠팡플레이와 함께 주요 빅클럽들의 흥미로운 프리시즌을 즐긴다면 축구팬들은 보다 특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근호 해설위원 역시 “쿠팡플레이에서 생중계하는 프리시즌 경기들은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와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위치나 움직임, 주전 경쟁 구도, 감독의 전술 등을 미리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여름 축구 열기를 책임질 해외 리그 프리시즌 전 경기는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